

“여행이 끝나자 길은 시작된다”

80년대 문제작가 3인의 새 장편 ... 탄탄한 기량으로 '존재' 문제 탐구

90년대 등단한 신인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80년대 문제작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하다. 《숲속의 방》의 작가 강석경씨는 8년만에 장편소설을 출간했고, 90년대 초반 모색기를 거친 김인숙씨와 김한수씨도 장편소설을 속속 출간하고 있다.

강석경·김인숙·김한수씨가 최근 펴낸 세권의 장편소설은 모두 '여행'을 소재로 한다. 여정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끼어드는 구조를 취한 점도 같다. 20,30대 젊은 남녀가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으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또한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이 소설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탄탄한 구성으로 품격 높여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살림)는 강석경씨의 세번째 장편소설로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상의 폭력과 구원의 문제를 다뤘다. 소설의 전반부는 한국에 있는 문화와 인도에 거주하는 주원 남매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문화가 인도를 방문한 중반 이후에는 인도를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소설은 읽는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작이다. 여성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라는 문학평론가 김이구씨의 지적처럼 페미니즘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그 까닭은 소설이 한국 남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 대부분의 한국 남자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해, 문화·주원 자매의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그려진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딸을 쫓아온 남학생에게 딸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입덧을 하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담배를 권할 정도로 자상한 아버지다.

김인숙씨의 《그늘, 깊은곳》(문예마당)은 해외여행을 소재로 한다. 호주 체류 경험이 녹아 있던 《먼길》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소설이다. 출판사 일을 그만둔 규원은 실연의 상처를 달래려고 남태평양에 떠 있는 섬을 찾는다. 혼자 있기 위해 떠난 여행은 우연히 만난 현영으로 인해 얼크러진다. 규원의 옆방에서 현영은 자살한다. 소설은 두

90년대 등단한 신인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80년대 문제작가들의 작품활동이 활발하다. 강석경·김인숙·김한수씨가 펴낸 장편소설은 모두 탄탄한 작품성으로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다.

개의 '첫사랑'을 축으로 전개되는데 규원의 뒤늦은 첫사랑과 '소설 속의 소설' 현영과 진태의 지독한 사랑이 그것. 여기에 규원의 첫사랑을 방해하는 그녀의 가족사가 곁들여 있다.

규원의 아버지는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중동 건설현장으로 떠났었다. 아버지가 없는 사이 어머니는 불륜을 범하고, 아버지는 향수병을 안고 돌아온다. 규원의 아버지는 말이 없다. 환갑을 맞아 해외여행을 보내 드리려는 규원의 계획은 아버지의 저항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

김한수씨의 《하늘에 뜬 집》(실천문학사)은 '가난과 아픔보다 더 지독한 쓰라림'이 깃든 성장소설로 읽힌다. 현민이 밭길 닿는 대로 이 땅의 산천을 배회하는 까닭은 존재의 버거움을 견디기 어려워서다. 그의 출생에 둘러싸인 비밀은 부모의 잦은 싸움에 원인이 되고, 현민을 집 밖으로 내몬다. 현민은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다. 현민은 결국 방향을 거듭한 후 세상과 화해에 이르지만,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죽음을 맛고, 할아버지마저 여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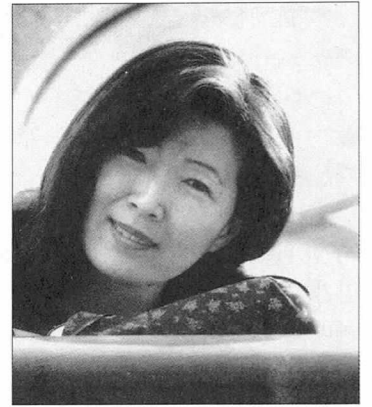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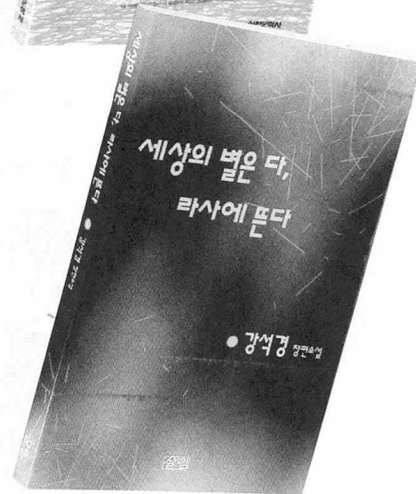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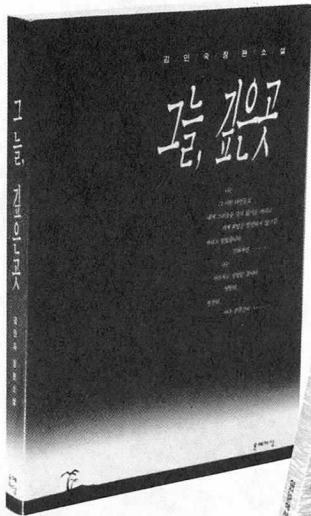
방탕하고 폭력적인 데다 혈육도 아닌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현민과 부친이 화해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 아버지는 현민에게 당부한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거라”.

'존재·사랑'의 주제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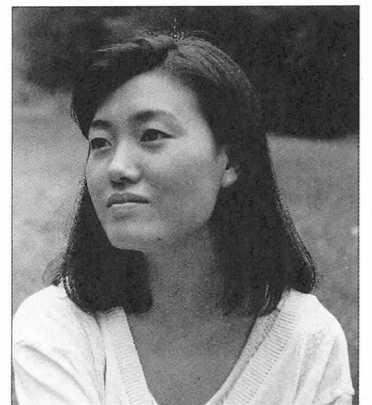
김인숙과 김한수는 중단편을 통해 80년대의 사회 현실을 묘사했던 작가들이다. 90년대 들어 이들은 존재나 사랑 같은 주제를 호홉 긴 장편 형식을 빌려 해명하는 작업에 열심이다.

“데뷔 때부터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기회가 닿아서 그 문제를 풀어본 것”이라고 말하는 김한수씨는 사회적 희망을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적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덧붙인다. 김인숙씨는 살아 있음의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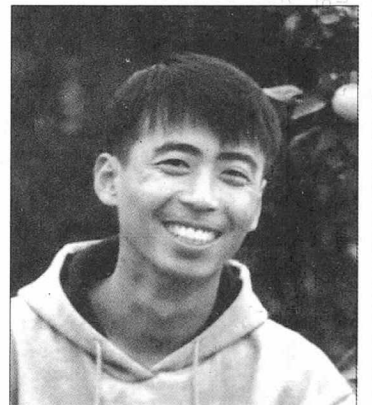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던 거야. 나는 그때 알았지. 사랑보다도 더 어쩔 수 없



강석경씨.



김인숙씨.



김한수씨.

는 건 삶이라는 걸. 살아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살아 있어야 할 이유라는 걸...》(《그늘, 깊은 곳》, 140쪽).

여행을 떠난 사람은 여행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마련. 문화는 라사에 가지 않고도 라사를 체험한다. 규원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통로 건너편에 앉아 있는 진태를 본다. 현민은 오랜 방황에서 돌아와 정순 모녀와 함께 정착해 땅을 일군다. 소설들은 살아 있음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최성일 기자